

Korean Trail 96th Story

대청호 비경 속 고향을 추억하는 향수호수

글 현경숙 · 사진 전수영 기자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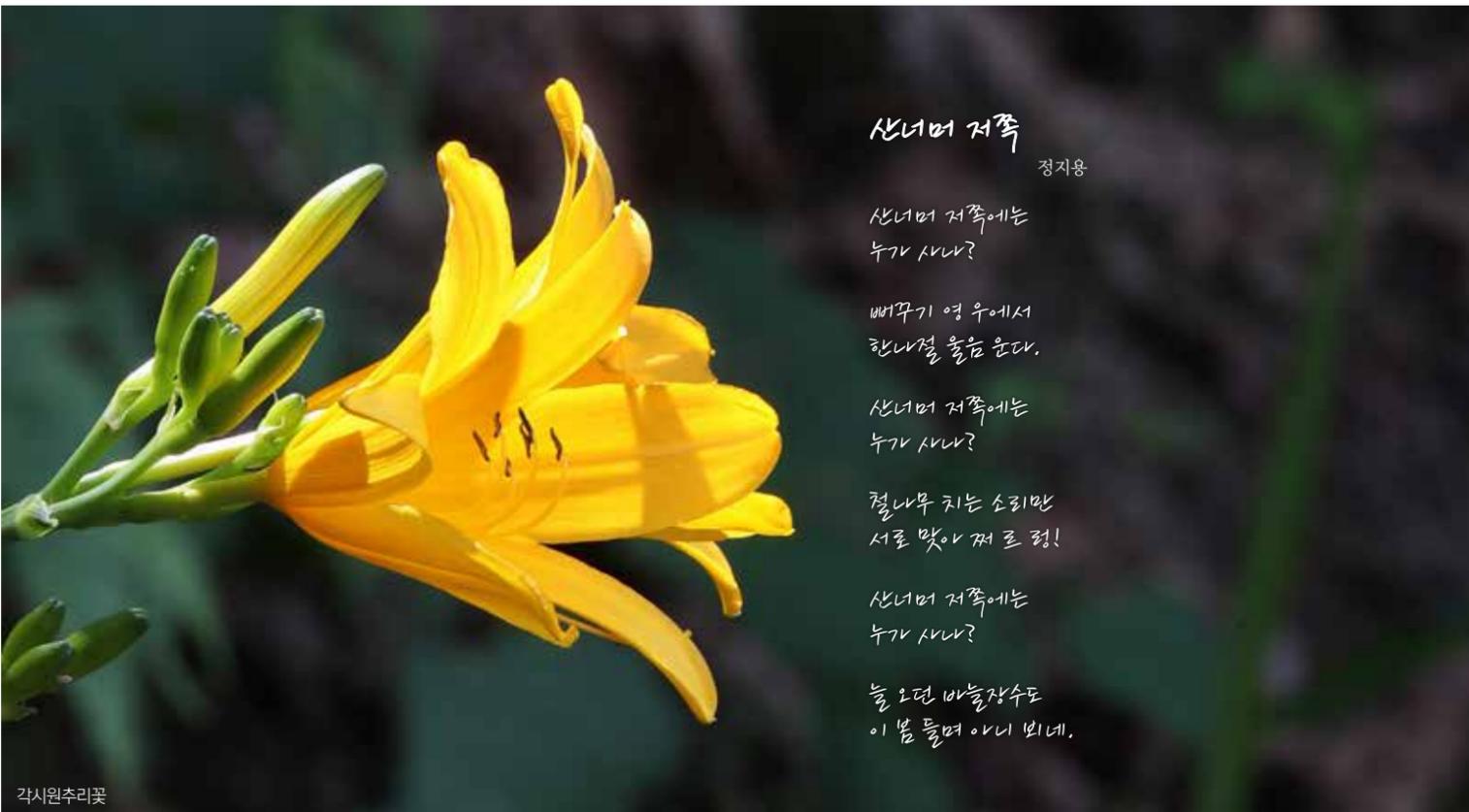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물대는 살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울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시 '향수' 중에서)





말이 빚어낼 수 있는 서정을 실감하게 한 시인 정지용의 숨결을 느끼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 대청호를 감상하고 싶다면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향수호수길'을 걸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대청호의 잔잔한 수면과 푸른 산이 어우러진 풍광에 젖어 2~3시간 걷다 보면 어느새 고향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 정지용의 고향인 옥천에는 그를 떠올리는 길들이 있다. 향수호수길, 향수바람길, 향수100리길 등이다. 이 길들의 이름은 옥천 출신인 정지용의 대표작인 '향수'에서 따왔다.

시 '향수'처럼 고향을 추억하게 하는 정겹고 아늑한 길들이다. 이 중 향수호수길은 대청호반을 따라 걷는다. 옥천읍 수북리와 안내면 장계리를 연결한 생태문화 탐방로인 이 길은 여행자를 마음속 고향으로 데려간다. 도시 생활에 지치고 메마른 가슴을 어루만지는 듯하다. 그만큼 자연생태는 잘 보존돼 있고 경치는 평화롭다.



각시원추리꽃

산너머 저쪽

정지용

산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베갯대 영 우에서
향나절 흠뻑 온다.

산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철나무 치는 소리만
서로 맞아 찌르렁!

산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늘 오던 바늘장수도
이 봄 들며 아니 보네.



물비늘 전망대에서 바라본 금강. 대청호로 흘러간다.

정지용은 1902년 옥천에서 태어났다.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로,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 그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고, 그의 작품은 남한에서 판금됐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그는 해금됐다. 해금 두어 달 만에 옥천군은 그의 문학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축제 '지용제'를 열었다. '시끝벽적' 축제는 지금까지 30여 회를 거듭하며 매년 5월 열린다. 금지의 사슬이 어찌지 못한 문학 열정이 읽힌다. 향수호수길 중간중간에 정지용의 시를 적어 놓은 시판들이 있다.

향수호수길은 마성산 자락에 조성돼 있다. 옥천읍 수북리 옥천 선사공원에서 출발해 날망마당~물비늘전망대~황새터~용맹이를 거쳐 안내면 장계리 주막마을까지 5.6km 거리로 이어진다. 이 길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다. 2019년에야 인공으로 만들어졌다. 1980년 대청호가 건설된 뒤 37번 국도 수북리 구간은 수몰됐다. 도로가 끊기고 인적이 드물어지자 생태는 더 풍부해졌다. 옥천군은 잘 보존된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쉬고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수북리 호숫가 산허리에 장계리 방면으로 산책로를 개설했다. 흙길 2km, 나무 데크길 3.6km, 모두 5.6km이다. 이 길이 힐링 트래킹 코스인 향수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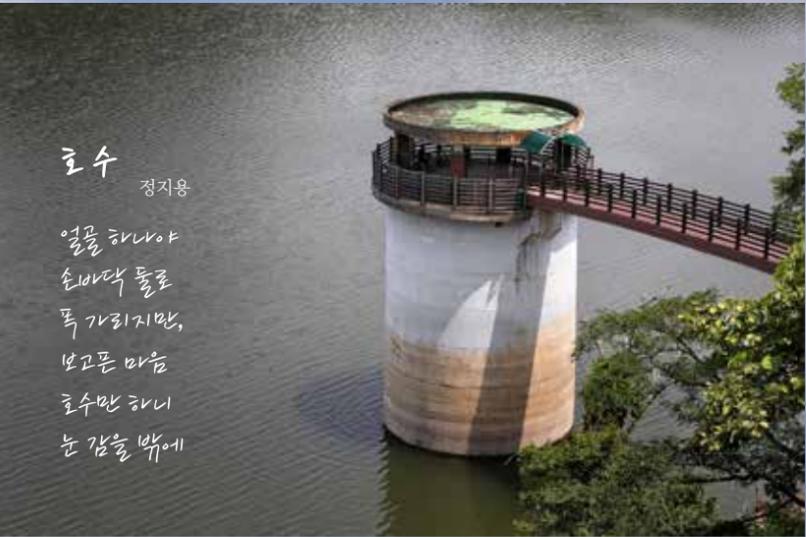
수상 레저 보트 선착장



길이다. 다만 지금 황새터~용댕이~주막마을 구간 2.3km는 낙석 위험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 구간은 산 쪽 절벽이 매우 가파르다. 낙석 방지 조치 뒤 재개방될 예정이다. 용댕이는 용이 승천하다 계곡으로 다시 떨어지며 절벽 바위를 이리저리 긁어댔다는 전설이 얽힌 곳이다. 기암괴석의 비경이 상상되지만 황새터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향수호수길은 주민들이 뽑은 '옥천 9경' 중 8경에 해당한다. 길에서 보는 풍경은 그만큼 호젓하고 멋스럽다. 이 길이 포함된 옥천군 대청호 일대 안터지구는 올해 5월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북에서는 괴산 산막이옛길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 등 멸종위기의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식생이 다양하다. 이는 대청호 준공 후에도 40여 년간 이곳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결과다.

황새터~주막마을 구간 통제 때문에 황새터까지 걸은 뒤 출발지로 되돌아와야 한다. 선사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황새터까지 왕복하면 7km 남짓 걷게 된다.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정도다. 수변 길은 나무가 우거져 마치 숲속을 걷는 것 같다. 여름에도 그늘이 많아 걷기에 힘들지 않을 것 같았다. 선사공원은 규모가 꽤 컸다. 대청댐 건설 후 방치되고 산재한 선사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보존 관리하는 곳이다. 멀지 않은 곳에 안터선사공원이 또 있다. 금강을 끼고 있는 옥천이 오래전부터 인간 삶의 터전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옥천의 한자 표기는 沃川이다. 비옥한 땅이란 뜻이다.

향수호수길에서 처음 만나는 쉼터는 물비늘 전망대다. 호수에 떠 있는 듯한 이 전망대에 서면 사방은 햇살에 반짝거리는 물비늘 때로 가득 찬 것 같다. 전망대는 예전에 상수도 취수탑으로 사용했던 구조물을 이용해 만들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대청호로 흘러드는 금강 저편으로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육지 속 섬 같은 오대리 마을이다. 이 마을의 앞쪽은 대청호이고, 뒤쪽은 산이다. 산 쪽으로는 도로가 없다. 배 맡고는 마을에 닿을 방법이 없다. 섬 아닌 섬인 섬이다. 원래 5개 마을이 있었고, 마을들은 여울을 건너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대청호 건설로 수몰되고 한 개 마을만 남았다. 지금은 10가구 정도, 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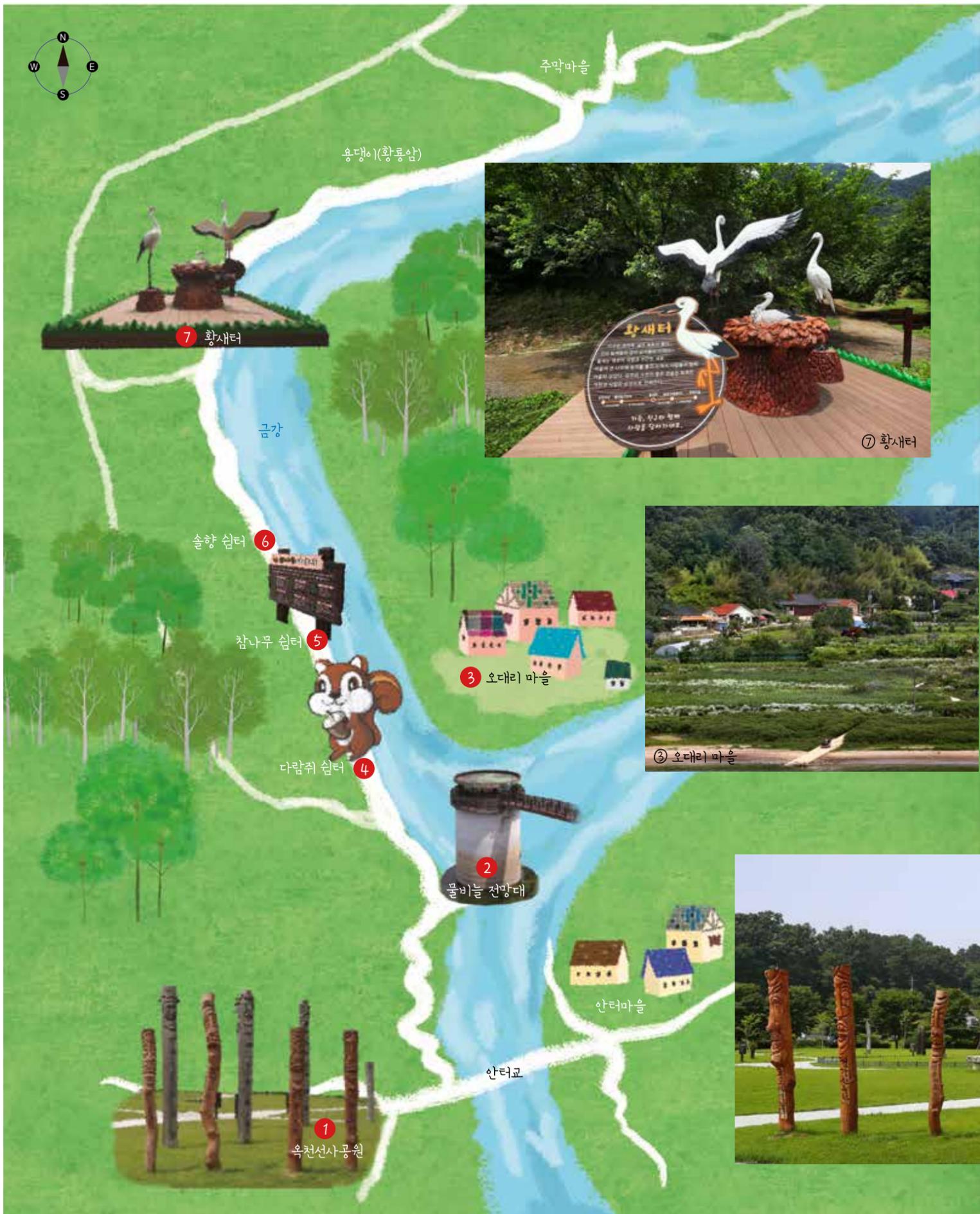


호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호수길에서 내려다본 물비를 전망대. 전망대는 예전에 상수도 취수탑으로 사용했던 구조물을 이용해 만들었다.

찢어지는 가난에도 시부모와 병든 남편을 정성껏 보살핀 나이 어린 신부를 기리기 위해 세운 효열문이 강 건너편에서도 뚜렷이 보였다.
향수호수길에서 가장 높은 다리는 길이 6m, 높이 9m의 우듬지 데크다. 마치 나무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통해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곳이다. 우듬지란 나무 꼭대기를 일컫는다. 솔향 쉽터라고 이름 붙여진 전망대도 있다. 호수 조망이 탁월했다. 소나무 향기엔 옛 고향의 정취가 담긴 듯 싶다. 황새터는 과거에 넓은 농토와 물이 있어 황새들이 많이 날아들었던 지역이다. 예부터 황새는 마을의 큰 나무에 둥지를 틀고 논에서 먹이를 잡아먹는 등 사람과 가깝게 어울려 살았다고 한다. 황새가 많았다는 것은 먹잇감인 물고기가 풍부했다는 뜻일 것이다. 대청호와 금강이 품은 넉넉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황새터에서 출발지로 돌아 나오는 길은 나그네의 가슴을 어느새 호수만한 그리움으로 가득 채운다.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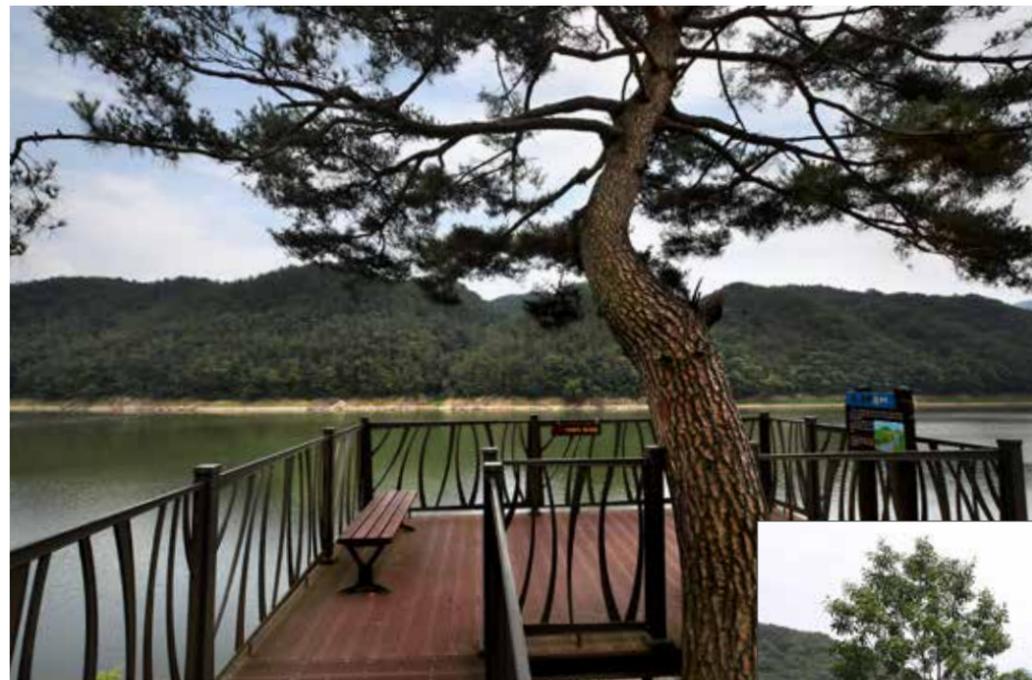
물비를 전망대에서 바라본 금강. 오른쪽으로 육지 속 섬 같은 마을 오대리가 보인다.



⑦ 황새터



③ 오대리 마을



⑥ 솔향 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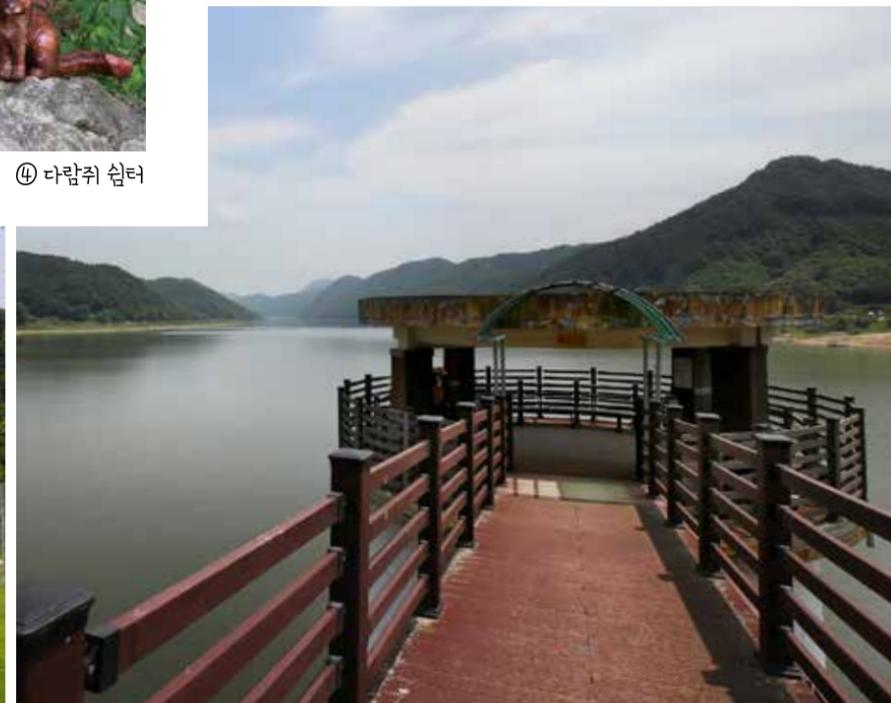
⑤ 참나무 쉼터



④ 다람쥐 쉼터



① 옥천선사공원



② 물비를 전망대